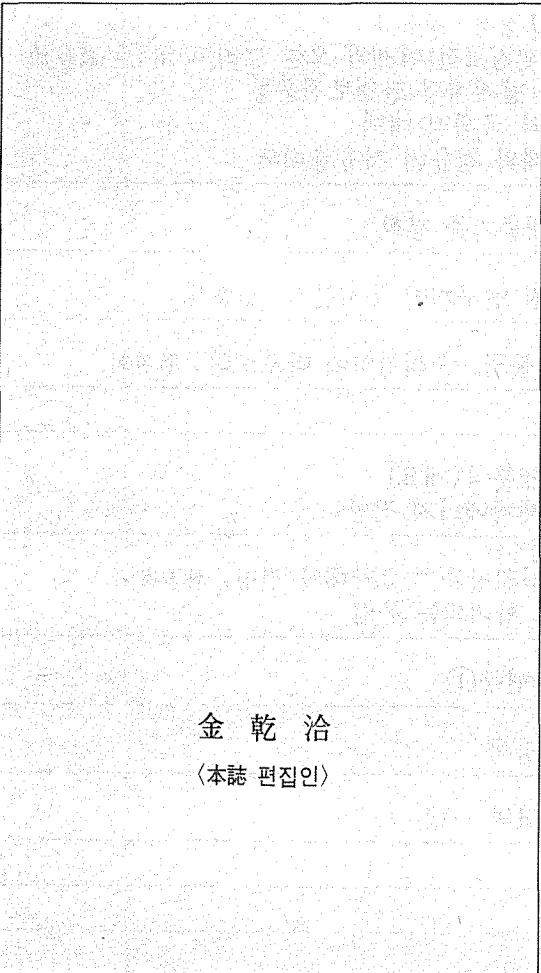


한때 우리나라는 국내소요원유의 수량을 中東지역으로부터의 도입에 의존한 때가 있었다. 70년대말의 제2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정부와 정유업체의 원유도입선다변화 노력의 결과 中東의존도는 크게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中東은 우리에게 무시될 수 없는 주요원유공급지역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금년 상

中東정세의 변화와 전망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반기중 국내원유도입의 中東의존도는 38.9%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원유공급측면에서 볼 때, 中東지역의 잠재력은 막강하다. 현재 세계원유매장량의 3분의 2가 中東지역에 편재되어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 非OPEC산유국들의 공급능력의 한계로 中東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한 OPEC의 영향력이 다시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 석유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석유소비증가율은 당초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중장기에너지수급전망에서는 총에너지수요중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비중이 상향조정되고 있다. 이것은 석유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동안 主宗에너지의 위치를 견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석유공급면에서 中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석유의 안정공급확보가 중요한 과제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최근 中東지역에서는 평화지향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그 변화는 경제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기초로 한 새로운 지역통합움직임과 민영화등 기존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80년대의 中東지역을 보면, 78년부터 1, 2년간에 발생한 몇개의 사건이 그후의 정치적 흐름을 규정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첫째는 78년 9월의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조약과

지역별 석유매장량 (88년말 현재)

	10억톤	10억배럴	구성비	가채년수
北 美	4.4	34.6	3.8%	9.5
美 國	1.1	9.0	1.0%	13.6
北 美 計	5.5	43.6	4.8%	10.1
中 南 美	0.3	2.3	0.3%	13.9
아르헨티나	0.3	2.6	0.3%	11.6
브라질	0.2	1.4	0.2%	12.3
에콰도르	7.5	54.1	5.9%	53.5
멕시코	8.3	58.1	6.3%	86.6
베네수엘라	0.5	3.6	0.4%	13.4
기타	17.1	122.1	13.4%	50.5
中 南 美 計	1.4	10.4	1.1%	24.4
西 歐	0.6	4.3	0.5%	5.0
노르웨이	0.4	3.0	0.3%	14.7
英國	2.4	17.7	1.9%	11.8
기타	12.1	92.2	10.1%	*
西 歐 計	0.5	4.0	0.4%	28.0
中 東	12.7	92.9	10.1%	*
이라크	13.4	100.0	10.9%	*
쿠웨이트	12.7	91.9	10.0%	*
中立地帶	0.7	5.2	0.6%	44.8
오만	0.6	4.1	0.4%	18.4
카타르	0.4	3.2	0.3%	24.1
사우디아라비아	23.1	170.0	18.6%	89.9
시리아	0.2	1.7	0.2%	17.2
기타	0.9	6.4	0.7%	30.9
中 東 計	77.3	571.6	62.3%	*
아프리카	1.1	8.4	0.9%	23.7
알제리	0.3	2.0	0.2%	12.5
앙골라	0.6	4.3	0.5%	13.4
이집트	2.9	22.0	2.4%	57.4
리비아	2.2	16.0	1.7%	32.2
나이지리아	0.2	1.8	0.2%	47.7
튀니지	0.2	1.7	0.2%	13.1
기타	7.5	56.2	6.1%	28.6
아프리카計				

아시아·대양주				
日 本	+	0.1	+	9.7
브루나이	0.2	1.4	0.2%	27.5
인도네시아	1.1	8.3	0.9%	17.7
말레이시아	0.4	2.9	0.3%	14.4
기타 동남아	+	0.3	+	15.0
인 度	0.8	6.4	0.7%	26.8
기타 아시아	+	0.2	+	9.6
호 주	0.2	1.7	0.2%	8.1
뉴질랜드	+	0.2	+	49.3
아시아·대양주計	2.7	21.5	2.3%	17.5
自 由 世 界 計	112.5	832.7	90.8%	50.2
공 산 권				
中 國	3.1	23.6	2.6%	22.8
소 련	8.0	58.5	6.4%	12.8
기 타	0.2	1.8	0.2%	11.3
공 산 권 計	11.3	83.9	9.2%	14.5
세 계 計	123.8	916.6	100.0%	41.0
O P E C 計	91.8	676.1	73.8%	89.2

<자료> 89년판 BP통계

79년 3월의 양국 평화조약의 체결이다. 그 결과 이집트는 아랍강경파국가의 반발을 사 일방적으로 아랍연맹에서 축출되었다.

中東 최대의 정치·군사대국인 이집트의 퇴진으로 그후 아랍세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제국과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제국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치적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분열시대를 맞게 되었다.

둘째는 79년 2월의 이란회교혁명과 80년 9월의 이란·이라크전쟁의 발발이다. 회교혁명이 국내시아파에 파급되는 것을 두려워한 사우디아라비아등 GCC제국과 요르단이 이라크를 지원하고, 시리아와 리비아가 이란을 지원하고 나섬으로써 中東지역의 혼미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셋째는 79년 12월의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침공이다. 中東제국은 회교의 기치 아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으나,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보조는 일치되지 못했다.

中東지역의 정치적 혼란은 석유가격을 비롯하여 경

제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이란·이라크혁명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에서 촉발된 제2차 석유위기로 파생된 유가폭등은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절약의 촉진 및 非OPEC산유국의 석유생산 확대는 83년 이후의 「逆오일쇼크」시대를 가져왔다.

또 전쟁당사국인 이란과 이라크의 반목·대립은 OPEC에도 파급되어 유가회복을 위한 협조감산에 균열을 가져와 약세기조의 유가구조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 결과 中東산유국들의 석유收入은 격감되고 수입과 개발프로젝트가 격감되면서 경제침체가 가속화되었으며, 또 주변의 非산유국들도 산유국으로부터의 지원감소와 송출근로자들의 송금收入의 격감으로 취약한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와같이 80년대의 中東은 내부분열이 계속되는 「전쟁·분쟁과 대립」의 불안정한 시대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中東정세를 규정해오던 틀에 지난해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란·이라크전쟁의 휴전은 그 상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정부는 8년여의 戰局을 반전시키지 못한채 88년 7월 1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결의안을 수락했다. 약 1개월 후에 휴전이 발효됨으로써 8년여에 걸쳐 계속된 전쟁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이란·이라크전쟁은 中東의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석유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PLO의 온건노선으로의 정책전환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라파트 PLO의장은 지난해 11월 15일의 팔레스타인 민족평의회(PNC)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선언하는 한편, 美國이 PLO에 강력히 요구해오던 이스라엘 승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42호, 338호의 수락, 테러리즘비난등 3개 조건의 수락을 천명했다. 12월에는 美國과 팔레스타인의 직접대화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3회의 의견교환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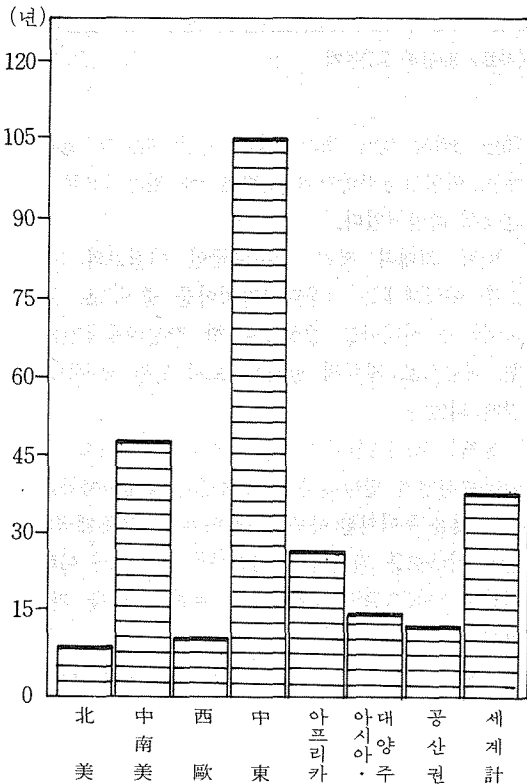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철수함의. 소련군 철수시기와 장래 아프가니스탄정권의 성격등을 둘러싸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은 철수를 완료했다.

또 석유정세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OPEC총회에서는 2년만에 이라크의 산유쿼타에의 복귀가 실현됨으로써 소회원국에 의한 협조체제가 부활되었다. 그 결과 유가는 그후 계속 견조세로 추이되고 있다.

이란·이라크의 휴전,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철수, 이집트의 아랍연맹복귀로 과거 中東의 대립구도를 규정해오던 틀은 깨졌다. 또 PLO는 온건노선을 취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90년대의 中東은 지난 80년대와는 달리 「평화와 공존·협조」의 안정시대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中東은 평화시대를 맞고 있다. 中東이 「새 현실주의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은 경제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의 예가 지역통합화의 전개이다. 지난 2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아등 5개국의 아랍·마그레브연합(AMU)과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北예멘등 4개국의 아랍협력회의(ACC)가 잇따라 결성되었다. 이로써 지난 81년에 창설된 GCC와 합하면 3개의 지역경제집합체가 탄생

지역별 석유가채년수



〈資料〉'89년판 BP통계

된 셈이다.

中東지역의 불력화 움직임은 한편으로 中東세계내의 새로운 정치적 경합으로 이어져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긴장관계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과거에 좌절되었던 아랍통합 시도에서 교훈을 얻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랍민족들은 통합, 통일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0년대, 60년대는 통합에 대해 모색을 계속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70년대, 80년대는 그 반동으로 一國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고가 강했다. 그러나 각국 국익의 충돌은 분열을 초래했다.

이번의 지역경제통합운동은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서 생겨난 제3의 시도로 평가될지 하다. 세계경제의 불력화에 대응하여 피폐한 각국경제를 상호 扶助함으로써 재건을 도모하고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연결되기 쉬운 국가들이 완만한 연대하에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경제능력향상을 목표로 한 민영화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해 9월 물가폭등으로 폭동이 일어났던 알제리에서는 80년대초부터 국영기업의 개편과 함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전후 재건을 서두르고 있는 이라크에서도 지난 87년 초부터 진행되어온 민영화움직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美國과의 대결로 화제를 모았던 리비아에서도 민영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외채무로 허덕이고 있는 이집트도 민영화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인 알제리, 리비아, 이라크, 이집트에 있어서 민영화가 급진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통합이나 민영화 시도의 배경에는 정치적 조류변화에서 비롯된 경제중시의 新현실주의가 깔려 있음은 틀림없을 것 같다.

中東지역에서 서서히 진전되는 정치적·경제적 地殼변동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아닐까. 정부는 국제석유수급의 현실과 경제성을 고려, 60% 수준에서 中東의존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中東지역에서는 평화시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조류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면에서도 지역통합화와 민영화가 진전되고 있다. 석유도입에 있어서 中東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현실주의」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

□ 신간안내 □

석유의 이해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